지애역할 오디션 (1+2)

1.

지애(북한말투) : 음마, 음마는 어째 매번 거짓부렁 합네까?

혜민 : 방송이니까, 청취율 잘 나오라고 그러지.

혜민 : 근데 넌 또 까먹었니? 사투리 쓰지 말라니까. 여기서 서울말 배워야지.

지애 : 음마도 방송에서 계속 북한말 썼잖아요?

혜민 : 그건 엄마 일 때문에 우리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.

혜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차 한 대가 와서 부딪힌다.

혜민 : 넌 차에 있어, 내가 내려서 볼게.

혜민이 차에서 내리자 지애는 백미러로 어머니와 한 모자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지켜본다.

2.

지애 :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죠?

진행자 : 지애씨 어머니가 방송에 탈북 루트를 공개해서 그 루트가 봉쇄되고 감시가 강화됐다고...

지애 : 네,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제일 죄송한 부분이에요.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, 어머니를 대신해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

지애는 잠시 침묵한다.

진행자 : 지애씨는 자신이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하세요?

지애 : 음... 같기도 아니기도 해요. 같은 점은,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은 탈북자로 많은 프로그램에 초청받고 있구요, 다른 점은, 저는 거짓말은 하기 싫어요. 많은 사람들 생각에 북한에서 사는 것이 참혹할 거라고 생각 하시는데, 사실 안 좋은 곳도 있지만, 현실에서는 어쩌면 남한이 북한보더 더 가혹한거 같아요.

진행자 : 지애씨는 지금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인정 하세요?

지애 :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, 저는 저의 북한신분이 부끄러웠어요. 근데 이제는익숙해 졌어요.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말도 잘 쓰게 되고 제 생각에도 제가 점점 한국사람 처럼 느껴져요.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때 쯤, 대중들은 저의 북한 신분에 정체성을 높이 평가해 주세요. 방송에서는 방송 효과를 위해서 북한 말을 쓰고 북한 사람으로 나오고, 현실에서는 서울말을 쓰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녹아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? 하고 늘스로에게 물어요.

지애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다가 계속 말을 한다.

지애 : 자신의 신분을 혼동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 제도 안에서 자신의 원래 신분을 연기하려고 노력하는데, 제 신분은 정확히 말하면 연기자가 아닐까 생각해요.